

# 미국의 관세폭탄에 따른 지역에서의 영향

2018. 4. 10

## 미국의 관세폭탄에 따른 지역에서의 영향

### □ 美-中 간 관세부과 현황 및 개요

-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수입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
  -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%, 알루미늄에 10% 관세를 부과\*하는 방안에 서명하여, 서명 15일 후인 3.23일부터 시행
  - \* 단, 캐나다와 멕시코, 호주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
  - \*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관세경감 또는 면제 가능
  -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\*으로 철강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
  - \*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(對美) 수출에 대해서는 15~17년간 평균 수출량(383만 톤)의 70% (268만 톤)에 해당하는 쿼터(17년 대비 74% 수준)를 설정
- 미국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EU·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조치를 시행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 점증
  - 이에 대응하여 EU는 미국산 쌀, 주방용품, 화장품, 위스키, 의류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
  - 중국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(CIC)가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(Blackstone)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으며, 미국 국채 매각 및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존재
- 또한 미국 정부가 4월 3일 중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300개 관세 품목을 추가로 발표
  -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를 명목으로 25%의 관세가 부과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명단을 발표하며 중국의 전략산업을 집중 타격
  - 이는 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'중국제조2025' 프로젝트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부분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며, 항공우주, 정보통신기술,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이 대거 포함
- 미국 정부의 중국의 전략산업의 관세 품목 추가발표 이후, 중국은 곧바로 “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조치하겠다”며 미국산 대두(메주콩)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로 맞대응
  - 미국의 관세보복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기술을 겨냥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, 대중무역 적자 개선 및 중국의 '기술굴기'를 견제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파악
  -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(WTO) 규정에 따른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의 경제 이익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하며 대두, 자동차, 항공기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25% 관세 부과
  - \* 단, 美, 中 양국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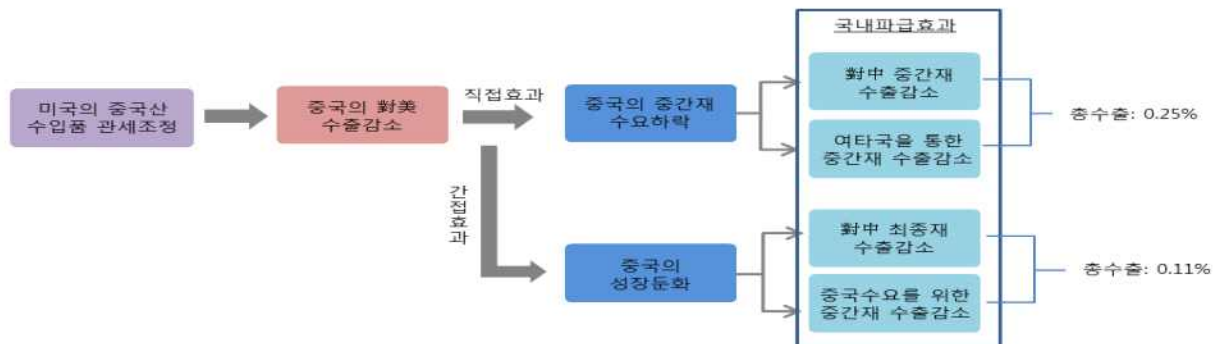
美-中 고율 관세 부과 현황

미국	내용	중국
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%	세율	미국 수입품에 25%, 15% 보복관세 동시 부과 25%의 관세부과 • 8개 품목: 돈육, 재활용 알루미늄 등 2017년 수입액 19억 9200만 달러 • 106개 품목 추가(4일): 대두, 자동차, 화공품, 항공기 등 14개 분야 15%의 관세부과 • 120개 품목: 신선과일, 건조과일, 견과류, 와인, 미국산 인삼, 강관(철강 파이프) 등 2017년 수입액 9억 7700만 달러
‘중국제조 2025’ 10대 핵심업종 1300개 품목 • 고성능 의료기기, 바이오신약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, 산업 로봇, 통신장비, 첨단화학 제품, 항공우주, 해양 엔지니어링, 전기차, 발광다이오드, 반도체 등	대상 및 품목	
1. 트럼프대통령, 수입철강·알루미늄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(3월 8일)	무역충돌 일지	3. 30억달러 규모 수입품 보복관세 예고 (3월 23일)
2. 트럼프, 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관세부과 예고(3월 22일)		5. 미국산 돈육·과일 등 128개 품목 관세부과(4월 2일)
4. 수입철강 관세부과 발효(3월 23일)		7. 상무부 “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”(4월 4일)
6. 500억달러 규모 1300개 품목 고율관세 부과(4월 3일)		

☐ 美-中 간 관세전쟁의 한국경제 파급효과

- [파급경로] 美·中 간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對美수출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직·간접효과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 - (직접효과) 중국의 수출재 생산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의 영향
  - (간접효과) 중국의 수출부진에 따른 중국의 성장둔화가 초래하는 영향
  - 한국은행에 따르면, 직·간접적 파급경로를 모두 감안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이 10%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0.36% 감소할 것으로 추정

중국의 對美 수출감소의 국내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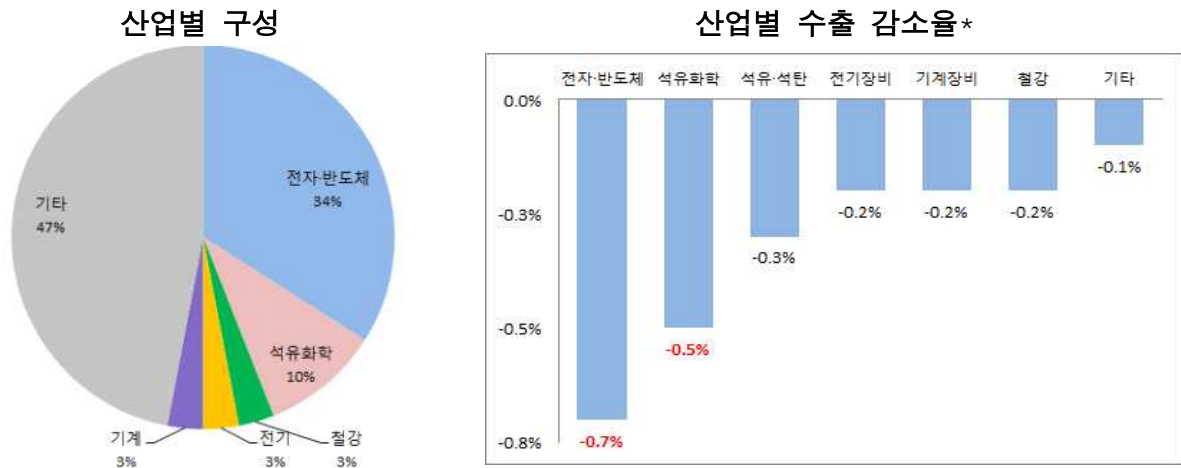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(2016.12)

○ [산업별 파급효과] 美-중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對美 수출감소의 산업별 영향

- 중국의 對美수출감소가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산업별로 보면, 전자·반도체와 석유화학이 각각 우리나라 수출감소분의 34%와 10%를 차지하고, 산업별 수출감소율 역시 -0.7%와 -0.5%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어, 주로 소재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

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자료: 한국은행

주: 산업별 수출감소율은 각 산업의 수출감소 + 산업별 총수출

□ 글로벌 관세전쟁의 한국경제 파급효과

○ 향후 예상되는 무역전쟁 시나리오는 미국, EU, 중국 간 국지적 무역전쟁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무역 전쟁 등 2가지 가능성 존재

- [국지적 무역전쟁 시나리오] 미국의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EU, 중국 등의 미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보복적 관세 부과
  - 일부품목에서 시작된 보복관세 부과가 이들 국가들의 전체 수입품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특히 미국-EU, 미국-중국 간의 상호교역에 대해서만 관세부과를 가정
  - 이 경우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은 유지되겠지만, 경제 대국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이 구축한 글로벌 경제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 존재
- [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] 국지적 무역전쟁이 확대, 미국, EU,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경쟁적 관세 인상을 일으켜 자유무역 기조가 위축
  - 미국의 관세부과는 과거 사례인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수입관세 인상을 유발
  -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고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영역을 국내 상품으로 대체
  -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의 기반이 훼손되며 WTO를 통해 이루어진 세계 무역의

기초와 자유무역기조가 위축

○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 시나리오로 전세계적인 관세 인상과 이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한국의 수출감소 및 GDP 감소분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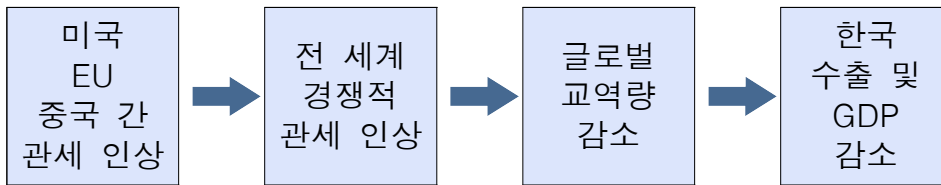
\* 분석기간: 1988~2016년, 분석대상: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35개국, 개도국 17개국 등 총 206개국

○ [관세가 국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] 관세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세계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

-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1%p 높아질 때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적으로 약 0.48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- 국가들의 평균관세율의 현재수준인 4.8%에서 10%로 상승할 경우 세계 교역량은 -2.5%, 15%로 높아질 경우 세계 교역량은 -4.9%감소할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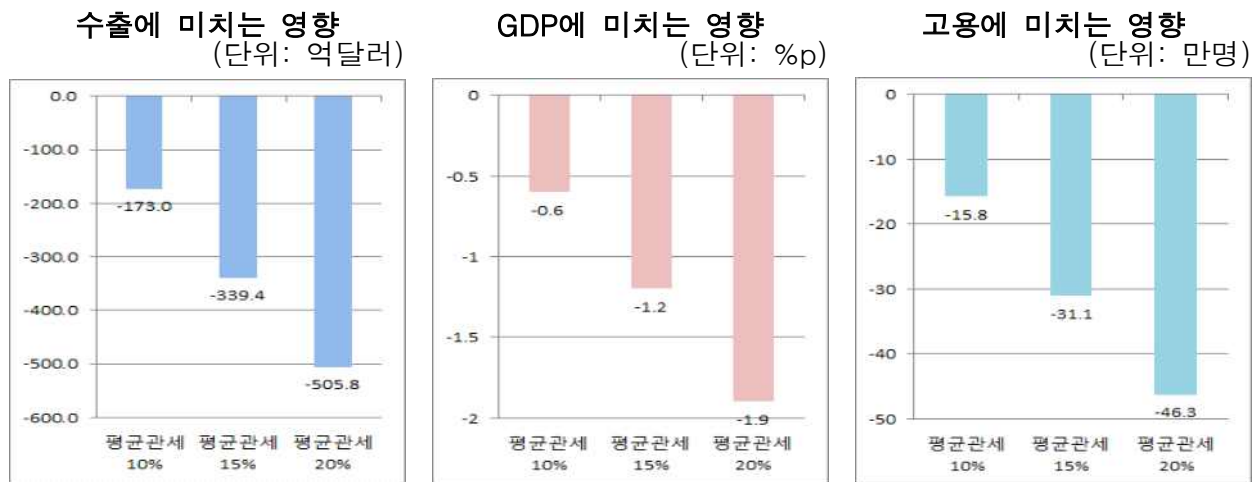
○ [국내 경제 영향]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 경제성장률 하락, 고용감소 등의 충격 발생

글로벌 무역 전쟁의 국내 파급 경로



- 글로벌 무역전쟁 영향이 확대될 경우 외수부문에 노출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액이 크게 감소
- 소국개방경제인 국내 특성 상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감소는 국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
글로벌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

주: 2016년 전 세계 평균관세인 4.8%에서 평균관세 10%, 15%, 20%로 변화했을 때 국내 수출, 국내 경제성장률, 고용 감소분

## □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 및 시사점

- 2017년 지역의 수출은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,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으로 편중되어 있음
  - (국가별) 지역의 2017년 국가별 수출비중은 중국 39.9%, 미국 18.9%로, 2국이 58.8%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
  - (품목별) 지역의 2017년 품목별 수출비중은 무선통신기기 품목이 38%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이 20.1%로, 두 개 품목이 58.1%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
- 구미지역은 생산대비 수출비중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환경이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
  - 2017년 생산대비 수출비중\*이 73.3%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의 수출은 중요함
    - \* 생산액과 수출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의 자료로 2017년 누계 생산액 444,507억원, 수출액 28,819백만달러, 환율은 2017년 평균 원/달러환율 1,130.48원을 사용
  -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보복 사태는 수출비중이 크며 그 두 국가에 수출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- 지역의 對중국의 중간재 비중(55.1%)은 전국(78.5%)보다 적어 직접적 타격은 적을 수 있지만,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전자·반도체 산업이 주력산업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클 수 있음
  - 지역의 중간재 수출\*은 2017년 총 수출액 262억 68백만달러 중 109억 38백만달러인 41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지역의 對중국의 중간재 수출은 지역의 총 중간재 수출비중보다 조금 더 높은 55.1%의 비중\*\*을 차지
    - \* 중간재는 반제품과 부품·부분품을 나타내는 것으로, UN BEC(Broad Economic Categories) 코드를 SITC 코드와 연계하여 중간재를 파악하여 분석
    - \*\* 지역의 對중국 총수출액 104억 93백만 달러 중 중간재 수출 57억 8천만 달러의 총 55.1%의 비중
- 지역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·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한 직접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
  - 미·중간 무역갈등이 현실화 되어 미·중간 교역이 감소되더라도 이러한 교역 감소가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대체되면, 이들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증가로 중국을 통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 존재
  - 다만 중국의 對美 수출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전자·반도체 등 우리 지역 주력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
  - 또한 관세전쟁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전이될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- 하지만 미국發 무역전쟁이 주요국의 반발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
  - 수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, 보호무역 조치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
  - 기업은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 및 법제도 검토가 필요
  - 중장기적으로 인도 및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충격에 강한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